

조선대 언어교육원 고교생 해외 인턴십 수료식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김재풍)은 최근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실시한 해외 인턴십을 위한 영어회화 위탁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의회사무처 직원 '공무원 역할' 교육



광주시의회 김영선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사무처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해수욕장 정화 활동



기아차 광주공장은 2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하계 휴양캠프'에 참가한 조남일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함께 해변 정화활동을 벌였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밝은안과21, 빛고을노인재단과 협약식



'밝은안과21'(대표원장 주종대)이 최근 광주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갖고, 회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술 지원과 정기의료봉사, 건강강좌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기로 약속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송원고 동창문화회(회장 김영문) 월례회=3일(월) 오후 7시 풍암동 녹차막연오리, 062-682-5567.

종친회

▲동래정씨 대종중 이사회(광주 전남회장 정현영)=4일(화) 오전 11시 왕십리 대종회관, 017-607-749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점,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승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

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모집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서구 거주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인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아이돌보미 25명 모집, 8월5일까지 방문접수 서구 양 3동 385-20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369-0074~75.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

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 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다이어트 계모임 회원 모집=월 2회 모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35~55세 일곡·상무·문흥·봉선·점단지구 선착순 6명, 010-2425-440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클로즈업 부문은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로, 영어로 진행하면서 관객의 호응을 얻어내야 한다. 또한 이번 대회 마니플레이션(Manipulation) 부문에서는 한솔희가 1등, 안하림이 3등을 나란히 차지했다. 1948년 처음 시작된 FISM 월드챔피언십은 전 세계를 돌며 3년을 주기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마술대회로 '마술 올림픽'이라 불린다. 마술사 이은결은 2006년 대회에서 제너럴 매직 부문 1등상, 2003년 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60여개국 150여 명의 마술사가 경합을 벌였다. <연합뉴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부음

▲이복원씨 별세 병천·병만·병초·병대·병태씨 부친상=발인 4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김병진씨 별세 국현·정현·서현(동명산업기계 차장)·태현(성 빈센트병원)·두현(한국경영원본부장)·

‘고교생 영웅’ 익사 위기 형제 구했다

광양제철고 2학년 김민석군 전남도교육청, 표창장 수여

계곡 물에 빠져 익사 위기에 놓였던 광양의 중·고교생 형제를 10대 남학생이 모두 구해내 화제다. 그 주인공은 광양제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석(17)군. 김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30분 친구와 함께 광양시 옥룡계곡에 놀러갔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즐기던 김군의 눈에 허우적거리며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한 학생의 모습이 들어왔다. 최근 장맛비에 물이 많이 불어난 계곡은 수심 3m를 훌쩍 넘을 정도로 깊었다. 물에 빠진 학생을 본 김군은 곧바로 뛰어들어 문모(16·고1)군를 구해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몰려오는 등 어수선한 과정에 김군은 조금 전

에 구해냈던 문군이 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물에 뛰어 들었다. 김군은 물속을 뒀진 끝에 3m 아래 바닥에 었던 채 가라앉아 있는 문군의 동생(14·중3)을 물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문군의 동생은 이미 호흡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김군은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119 구조를 요청하고 평소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했다. 문군의 동생은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3일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과 전남도교육

청 관계자는 김군이 재빨리 구조하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반장과 안전부원 등으로 활동하는 김군은 의협심과 책임감이 강해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도 이른바 ‘짱’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행이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은 더욱 알려졌다. 건강한 체격에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길고 닳은 수영실력은 이번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됐다. 김군의 선행사실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전남도청 공무원이 도 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김군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다시 한번 학교현장에 강조하기로 했다. 김군은 "누구라도 그 같은 현장을 봤다면 구하려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모두 생명을 건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봉사하는 길 찾는 시도민 모두 적십자 품으로”

김필식 신임 광주·전남 적십자 지회장 내일 취임

“길을 몰라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 안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104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사회장을 맡게 된 신임 김필식(66) 광주·전남지사 회장(동산대학교 이사장)은 2일 “적십자 회원 1만명 늘리기”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적십자 활동은 후원금에 뿌리를 두는데 이 지역에서 경제여건 때문인지,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적은 액수라도 많은 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김 이사장은 1905년 대한적십자사 설립 이후 최초로 여성 지사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나는 여장부이기 보다는 여자이고 싶고, 주먹을 들고 힘으로 앞세우는 것은 내 스타일도 아니다”며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여자를 시켜 놓

으니 별 수 없더라’는 말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 회장은 서울대 농과대학 농가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삼임위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KBC 광주방송 이사회 의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해인학원 동산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매곡동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가곡 ‘가고파’ 작곡가 김동진 선생 별세

가곡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96) 예술인 회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가곡 ‘가고파’를 비롯해 ‘봄이 오면’, ‘수선화’, ‘산수화’, ‘꽃이여’, ‘목련화’ 등을 작곡해 우리나라 가곡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 외에도 교성곡 ‘양산기’, ‘민족의 축일’, ‘민족의 행진’, 가곡 ‘심정전’ 등을 작곡했으며 작곡집 ‘내마음’, ‘수선화’, ‘산수화’ 등을 펴냈다. 고인은 이같은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3·1 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서울시문화상,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골드메달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13년 3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 송실중에서 바이올



린과 피아노, 작곡 등을 공부했으며 이후 일본 니혼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1939년 만주 신경교향악단에 입단해 제1바이올린 연주자 겸 작곡가로 활동한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남측으로 내려와 서라벌예술대학과 경희대 음악대학에서 음악 교수로 재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신영·신원(경희대 교수)씨와 딸 신화씨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30분이며 묘소는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02-958-9549. <연합뉴스 >

‘한국 항공우주 기술’ 강연

공창덕 조선대 교수(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부)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리딩(Reading) 워커피드(Wokefield)에서 개최되는 ‘2009 유럽-한국 과학기술 공동학술회의(EU-Korea Conference)’에서 초청연사로서 ‘한국의 항공 추진시스템 연구 개발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발표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인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 심의위원 김영서 ◆환경부 ◇국장급 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희석 ◆광주대학교 ▲홍보실장 천성관 ▲교무부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최준영 ▲입학관리부처장 이득기 ▲학생부처장 김상엽 ▲산학협력단장 최후남 ▲산학협력단 부단장 윤홍상 ▲호심인재개발원장 이규준 ▲정보전산원장 임건우 ▲평생교육원장 김규열 ▲국제교류센터장 이상기 ▲외국어교육센터장 서경희 ▲신문방송사 주간 최병진

미술가 최현우 FISM월드챔피언십 오리지널리티상

미술가 최현우(31)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FISM(세계미술연맹)월드챔피언십 2009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오리지널리티상(Originality Award)을 받았다고 소속사 엠블라우드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소속사는 “오리지널리티상은 대회 출전자 중 가장 독창적인 미술을 선보인 한 명에게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부문별 상이 아니라 전체 출전자들 대상으로 주는 상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최현우는 이번 대회에서 클로즈업 부문에 출전해 인어공주를 주제로 물속에서 물방울과 금붕어를 활용한 공연을 펼쳤다. <연합뉴스 >

마리비리 프리드 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정액시스템 프리드. 현대중앙상조. 기금문의 ☎ 1688-3740